

중국 남방(南方)항공, 센양(瀋陽)-평양 노선 취항

1. 개요

- 중국 남방항공(南方航空)은 센양(瀋陽)-평양간 정기항공편을 새로 개설하여 6월 초순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운항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.(6.7, 중국국제방송)

2. 동향

- 북한-중국은
 - '59. 2 「북-중 항공협정」을 체결하여 '59. 4 평양-베이징간, '00. 4 평양-센양(瀋陽)간 노선을 각각 개설하였으며
 - 현재는 북한의 고려항공이 매주 2회 평양-베이징(화·토) 및 평양-센양(瀋陽)(수·토)간 노선을, 중국의 남방항공이 베이징-평양 노선을 각각 운항하고 있음.
- ※ 북한은 현재 베이징, 마카오, 센양, 블라디보스토크, 하바로프스크, 방콕 등 3개국 6개 정기노선에 취항하고 있으며, 외국 항공사로서는 중국 남방항공만이 북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음.

3. 분석

- 랴오닝(遼寧)성의 성도인 센양(瀋陽)은
 - 중국 최대의 중화학공업 도시로서 전기·기계·금속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
 - 철광석, 금강석, 석탄, 석유, 몰리브덴, 망간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
 -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중국 동북지방의 교통상 요충지역임.

○ 이번 남방항공의 센양(瀋陽)-평양간 정기항로 취항은

- 최근 북한과 중국 요녕성과의 교역규모가 4억7천만달러('03년)를 넘어서며 북·중간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(46.6%)을 차지하는 등
- 북한과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교류·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
-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교통 요충지인 센양(瀋陽)과 북한과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
- 북,중간 지방교역 촉진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활성화 등 경제교류,협력 확대에 대비한 것으로 보임.

< 북한 국제선 정기노선 현황 >

항공사명	노 선	운항개시	운항횟수	비 고
고려항공 (북한)	평양-베이징	'59.4	주2회	
	평양-센양	'00.4	"	
	평양-방콕	'93.4	주1회	
	평양-마카오	'96.9	"	'96.9 방콕행이 경유 '98.5부터 직항
	평양-블라디보스토크	'97.8	"	
	평양-하바로프스크	'75.9	"	
남방항공 (중국)	베이징-평양	'03.3	주2회	
	센양-평양	'04.6	"	

